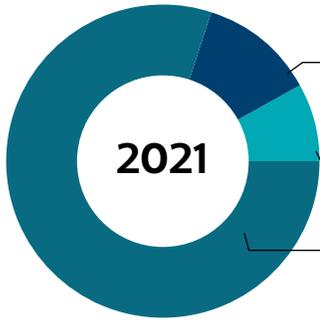


칠리악의 인권

칠리악의 인구는



11%의 비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2021년에
- 12%의 주민은 가시적 소수 인종,
 - 8%는 원주민이었으며,
 - 80%는 백인이었습니다.

주택 위기는 칠리악에서 인권 문제입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칠리악의 주택 가격 중앙값은 \$399,710에서 \$750,000로 88% 올랐습니다. 이는 주 전체 상승률인 57%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칠리악에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7~8일 칠리악에서 413명이 노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10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숙은 원주민이 더 자주 경험합니다

2020년 칠리악은 프레이저 리버 밸리에서 원주민계 노숙자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25%

의료 이용은 칠리악에서 인권 문제입니다

차별은 의료의 장벽입니다



원주민, 장애인, 비영어권자, 노숙자 및/또는 약물 사용자는 의료 이용하려 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성 약물 비상사태



2015년 이후 독성 약물 공급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차별과 증오는 칠리악에서 인권 문제입니다



반원주민, 반흑인 증오 및 이슬람 공포증

칠리악의 원주민과 흑인은 의료와 취업뿐 아니라 소매업 환경에서도 일상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칠리악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증오 증가

참가자들은 성 소수자 공동체, 특히 성별 정체성이 다양한 청소년과 트랜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증오와 차별이 염려스럽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칠리악의 고용과 인권

이주 노동자의 인권

2022년 BC주에는 11,831명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부문에 종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표준 이하의 근무 및 생활 조건을 직면하고 있으며, 심리적, 재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BC 인권 위원실(BCOHRC) 소개

BC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에 따라 BC주 인권 위원(Human Rights Commissioner)은 BC주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담당합니다. BC주 인권 위원실(Office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BCOHRC)은 불평등, 차별, 불공평이 없는 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수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실에 관한 자세한 정보: bchumanrights.ca

칠리악의 BCOHRC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BCOHRC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는 BC주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년간의 지역 사회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칠리악은 참여한 네 개의 지역 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칠리악의 칠리악 지역 사회 서비스(Chilliwack Community Services), 마운틴사이드 피해 감소 협회(Mountainside Harm Reduction Society), 유니크 갯 투게더(Unique Get Together Society) 같은 지역 사회 파트너가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칠리악 커뮤니티 리빙 협회(Chilliwack Society for Community Living)와 스톨로(Stó:lō) 네이션 지도부 및 스톨로 주민을 지원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칠리악 인권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칠리악 커뮤니티 브리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seline.bchumanrights.ca/chilliwack